

건축공간연구원

연구과제 소개

auri

구분	과제명	과제책임
수시 과제	소규모 건축물 품질개선을 위한 정책추진 로드맵 마련 연구	염철호
수탁 과제	공간환경전략계획 및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관리와 개선방안 연구	임유경
	근현대 건축유산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이규철
	도농복합도시의 공간복지 서비스 계획체계 구축방안 연구	성은영
	경관 계획, 심의 등 지역경관 운영관리 체계 개선 연구	심경미

❶ 소규모 건축물 품질개선을 위한 정책추진 로드맵 마련 연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건축물인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다세대주택 같은 소규모 주택, 파출소·어린이집·주민센터 등의 소규모 공공시설, 그 밖의 근린생활시설 등은 대부분 소규모 건축물이다. 2020년 기준 연면적 200㎡ 미만의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 약 727만 5,000동 중 66.6%(약 484만 8,000동)로 3동 중 2동이 2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소규모 건축물은 중·대규모 건축물에 비해 낮은 품질과 취약한 시장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과거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축주의 직영공사 범위를 661㎡ 이하까지 허용해 왔는데, 부가가치세 10%를 절감하기 위하여 일단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신고한 후 영세한 무자격 업체에 도급공사를 주는 것이 일반화된 점이 소규모 건축물 시장 왜곡의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는 직영공사 범위를 200㎡ 이하로 축소하였으나, 불법 면허대여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여전히 2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자격자의 시공, 품질관리의 미흡, 관련 주체의 역량 부족, 제도적 관리 대상 제외 등의 문제점들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격경쟁 기반의 악순환 구조’에서의 저렴한 대가로 인한 노동시간 장기화나 품질이 낮은 기술력과 서비스의 문제를 개선하여 소규모 건축시장을 ‘양질의 서비스 기반의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건축시장에서 높은 품질의 기술력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그렇게 조성된 건축물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규제나 단속강화 같은 단기 처방식의 조치보다는 취약한 시장구조와 산업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정책과 실행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건축공간연구원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함께 소규모 건축물의 품질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 구축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설정하였으며, 이 연구는 그 출발점으로서 소규모 건축물의 품

질개선은 물론 한 걸음 나아가 건축시장 정상화를 위하여 단기·중기·장기 등 단계별로 필요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과제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사업추진·연구수행 등 정책 및 연구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염철호

## 수탁과제

### ① 공간환경전략계획 및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관리와 개선방안 연구

2007년에 「건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건축 관련 민원, 설계 공모 업무나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전문가 제도가 도입되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지역총괄계획가의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부터는 총괄·공공건축가 운영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총괄 및 공공건축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건축·도시 관련 사업 조정 및 자문응대, 사업발주방식 검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공간환경전략계획은 도시차원의 관리계획과 필지단위 사업계획 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으로서 지역의 정체성 및 통합적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공간관리 방향과 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전략계획이다. 2021년 민간전문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은 지원 범위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총 22개 지자체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지원사업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참여 지방자치단체 수가 많아진 만큼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는 2021년 지원사업의 가시적 성과 도출 및 확산을 위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운영하고 향후 지원사업의 개선사항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전문가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간환경전략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지원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

임유경

### ② 근현대 건축유산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우리나라에서는 근현대 건축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두 가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문화재청에서는 2001년부터 「문화재보호법」에 등록문화재 제도를 신설하여 근대 시기의 유산을 문화재로서 보존하고 활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는 2014년에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15년부터 근현대 건축유산을 건축자산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등록문화재 제도가 20년 동안 시행되고 있고 건축자산 제도가 6년 정도 시행되었는데, 두 제도를 적용하는 현장에서는 근현대 건축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데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도 두 제도의 시행 대상과 목표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등록문화재와 건축자산은 '문화재 등록 여부'를 제외하면 비교적 넓은 범위의 근현대 건축유산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다. 건축자산 제도와 등록문화재 제도는 대상뿐만 아니라 관리제도의 목표에서도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존·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고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으로 '보존과 활용'을 동시에 지향하고 있다.

근현대 건축유산의 동일한 대상에 대해 건축자산과 등록문화재 제도에서 보존과 활용을 모두 포함할 것이 아니라, 제도의 운영기관 특성에 따라 보존과 활용의 역할을 분담하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두 제도의 동일한 대상인 '근현대 건축유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관리체계를 구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근현대 건축유산의 범위 및 제도의 운영 목표와 문화재 및 근현대 건축유산의 관계 정립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근현대 건축유산의 대상과 관리 목표를 재검토하여 근현대 건축유산 제도의 합리적인 관리 방법론을 구상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근현대 건축유산의 효과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 건축자산 제도와 등록문화재 제도의 상호보완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규철

### 3 도농복합도시의 공간복지 서비스 계획체계 구축 방안 연구

소득 수준 향상으로 개인의 행복한 삶의 가치가 중요해지고 코로나19 유행 장기화 등으로 인해 이동과 접촉 최소화가 요구되면서 의료·체육·문화 등의 일상 및 여가활동도 집 주변에서 충족하게 되어 근린의 편의 및 복지시설 공급 수준 제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간을 통한 주민의 복지 제고를 위해 생활SOC복합화사업 및 부처별 시설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원과 체육·문화·보육·복지 시설 공급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국비지원을 위한 전국 일괄공모방식의 사업추진은 지역 간 또는 계층 간 수준 격차, 지역 내 시설의 중복성, 지역 주민의 수요 등 지역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기존 지역 단위의 시설 공급 및 관리계획으로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어렵고, 정비 및 개발사업 단위의 시설계획으로는 현실과 미래 수요 반영도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인구고밀지역인 도심지와 인구저밀지역인 농어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저밀도로 인해 효율성 측면에서 배제된 도농복합 지역의 시설 및 서비스의 공급이 안 되거나 수요를 고려하지 못한 과다 공급으로 예산의 비효율과 운영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서비스 주체인 지자체가 수요 변화, 유지·관리비와 운영비 증대, 시설 노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기 위하여 신규 시설의 공급 혹은 기존 시설의 재배치 등 지역별로 부담 가능한 서비스 공급정책을 자립적으로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복지 서비스의 공급 및 관리계획을 체계화하고자 한다. 특히 지역 내 공간복지 서비스 수급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증거기반의 지역맞춤형 공간복지 서비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사례지역에 대한 계획 시뮬레이션을 통해 계획 수립의 절차와 방법, 주체 간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성은영

### 4 경관 계획·심의 등 지역경관 운영·관리 체계 개선 연구

2007년 「경관법」이 시행되었고, 이후 2014년 「경관법」이 전면 개정되었으며, 2015년과 2020년에 제1·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2014년 「경관법」 전면 개정으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고,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에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다. 전면 개정 이후 약 6년 동안 경관심의 및 경관계획을 본격적으로 운영한 결과, 경관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2020년에 수립된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0~2024)'에서도 '경관관리체계 실행력 강화'를 3대 추진전략 가운데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토교통부는 경관 관련 제도 및 행정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기본계획에서 도출된 주요 과제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으로서 현재 「경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 개정이 실제 경관현장에서 작동하고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운영·관리체계의 개선과 보완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인식하에 지역 경관 관리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관계획, 경관심의, 경관행정 등 크게 세 부분의 운영·관리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경관제도 개선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도출하여, 쟁점별 운영현황과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필요사항을 도출하는 것 ▲둘째, 제도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국내외 유사사례를 분석하는 것 ▲셋째, 「경관법」 개선의 기본방향과 주요 쟁점별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최근 제기된 경관 관련 쟁점사항의 실태를 파악하고,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경관법」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심경미



## 제2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및 세미나 개최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제2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의 시상식 및 세미나가 지난 11월 17일(수) 온라인 세미나로 진행되었다.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은 우리나라 건축공간 품격 향상과 건축 분야 발전을 위해 국민들이 원하는 건축정책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자 2020년 시작되었다. 이번 공모전은 '우리나라 건축과 공간환경의 현재를 진단해 볼 수 있는 내용 혹은 미래 건축과 환경을 위한 새로운 시·도나 실천방안'을 주제로 7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3개월간 진행되었다. 에세이·포스터·동영상 등 3개 분야에서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총 134건이 응모하였으며, 10월 말 심사를 통해 총 8개 작품을 선정하였다.

대상으로 선정된 '도시탐구생활(동영상)'은 대단지 아파트로 인한 통행 불편 해결, 보행자 중심의 가로 조성, 역사건축물 경관 개선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최우수상에는 '주거환경생태계의 전환, 건축서비스 정보 공유를 통한 작은경제(에세이)'가, 우수상에는 '사운드스케이프로 그려나갈 대한민국(동영상)'이 각각 선정되었다.

시상식 이후 '건축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먼저 김영현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이 '건축정책의 성장 과정과 국민이 바라는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으며, 송하엽 중앙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젠플한 밀도 / 경관의 미래도시공간'을, 남지현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 연구위원이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주제'를 차례로 설명하였다. 끝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정책학회 등 전문가와 함께 종합토론을 진행하여 건축정책 전반에 대한 성과 점검과 향후 추진 방향을 살펴보았다.

## 2021 (사)한국여성건설인협회 -건축공간연구원 공동세미나 '포스트 코로나, 건축도시공간의 변화를 이야기하다'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사)한국여성건설인협회와 함께 10월 22일(금) 온라인 생중계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건축도시 분야는 전염병 대응을 위한 도시환경, 돌봄 안전망 강화 등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이에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건축도시공간의 변화를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마련하였다.

김애주 (사)한국여성건설인협회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세미나에서는 황두진 황두진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시 문명과 회복력'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손동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에 대응하는 공간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도시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과 시설별 대응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하였다.

종합토론에서는 김호정 (사)한국여성건설인협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두 발제자가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에 따른 건축도시 분야의 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환경을 예측하는 등 더 나은 건축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모색되었다.



## 전문가 초청 세미나 “건축을 스마트하게, ‘스마트건축’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10월 27일(수) 대한건축사협회 국제회의실에서 전문가 초청 세미나 “건축을 스마트하게, ‘스마트건축’”을 개최하였다.

먼저 김은희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스마트 건축 산업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스마트건축의 개념 정립 및 건축물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산업화 모델 구축 등을 해 수행한 연구과제의 주요 내용을 전달하였다. 또 채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은 ‘스마트한 주거생활, 스마트하우징’을 통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스마트하우징 관련 R&D 연구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였다. 이어 강태웅 단국대학교 교수는 ‘스마트건축, 제조기반의 건축: 공업화, BIM, 목재패널라이징 그리고 그 결과’에서 스마트제조업 방식에 기반을 둔 공업화 주택의 개념 도입 및 사업화 추진현황을 발표하였다. 끝으로 노상도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제조와 스마트 팩토리의 개념과 성과, 제조 산업의 변화를 ‘스마트 제조와 제조 산업의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성아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안용한 한양대학교 교수, 조관우 국토교통부 사무관, 지강일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 자리에서는 스마트건축 활성화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산업 현황, 관련 제도·정책 개선 및 협력과 민간 시장에서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다.



## 건축공간연구원-대한건축학회 제2차 공동 학술 심포지엄 '건축자산 용어 사용과 개념, 지역의 건축자산과 역사문화자원'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대한건축학회는 10월 29일(금) 여수 EXPO컨벤션센터에서 '건축자산 용어 사용과 개념, 지역의 건축자산과 역사문화자원'을 주제로 제2차 공동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건축자산 및 역사문화자원 보존과 활용, 이에 따른 정책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관련 전문가와 관계자 외에도 건축자산 및 역사문화자원에 관심 있는 일반인의 참여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를 함께 진행하였다.

1부 주제발표에서는 김영철 배재대학교 교수가 '전쟁·파괴·보존: 프랑스와 독일의 문화재 관리', 이수정 국립고궁박물관 학예연구사가 '문화재적 관점에서 본 국내 건축자산 관련 용어와 개념의 제문제', 정연상 국립안동대학교 교수가 '경북지역 역사문화자원 조사현황 고찰', 김태일 제주대학교 교수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기초조사 성과와 후속사업' 등을 각각 발표하였다.

김기수 동아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규철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신웅주 조선대학교 교수, 이동현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한 2부 종합토론에서는 문화재와 건축자산, 역사문화자원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건축자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건축자산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 제3회 auri 마을재생 세미나 '지방도시로 간 청년의 지속가능한 지역살이'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11월 6일(토) 공주 고마아지트에서 '지방도시로 간 청년의 지속가능한 지역살이'를 주제로 제3회 auri 마을재생 세미나를 열었다.

최근 지방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청년층 유입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고, 이를 유희공간 재생이나 지역자원 활용과 연계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에서 청년활동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살이에 대해 논의하고자 기획되었다.

건축공간연구원 장민영 부연구위원이 세미나의 진행을 맡은 가운데 지역에서 청년공간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발제자가 차례로 나섰다. 로컬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최정혜 춘천일기 대표, 순창과 조치원에서 활동하는 장재영 방랑싸롱 대표, 공주에서 가가책방을 운영 중인 서동민 가가북앤컬처 대표가 차례로 실제 지역에 정착한 청년들의 공간 조성 및 운영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는 장민영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상현 공주시 여성가족과 인구청년정책팀장, 이준형 도시공감협동조합 건축사사무소 실장, 권오상 퍼즐랩 대표가 참여해 ▲지역 활동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행정 및 중간지원조직, 지역 원주민 등과의 관계 ▲지역살이 변수와 다양한 형태 등 지속가능한 지방도시 생활과 마을재생 방안에 대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 2021 한옥포럼

### ‘한옥 공공건축물의 현황과 과제’ 개최

건축공간연구원 국가한옥센터가 주최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경주시가 후원하는 ‘2021 한옥포럼’이 지난 11월 12일(금)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한옥 관련 정책을 시행한 지 10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한옥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에 ‘한옥 공공건축물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옥 공공건축물의 보급 현황을 살펴보고 실제 기획 과정과 효과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지자체 한옥 등 건축자산 담당공무원 워크숍’도 함께 진행하였다.

주제발표에서는 안국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수원시 공공한옥 건축기획 사례’를 공유하였으며, 장필구 동양미래대학교 건축과 교수는 ‘정수초등학교 한옥 교실의 도전과 역할’을 소개하였다. 이어 김가람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원은 ‘한옥 공공건축물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이어 전봉희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당준상 전 수원시 화성사업소 문화유산 관리과장, 김원천 참우리건축사사무소 대표, 신치후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안국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장필구 동양미래대학교 건축과 교수, 김가람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이 한옥 공공건축물 활성화와 정책 마련 등 보급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 2021 제4회 건축공간연구원- 근대도시건축연구회 공동학술세미나 ‘지역 건축자산의 제도적 활용방안 -남원, 수원, 제주의 사례’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근대도시건축연구회가 주최하는 공동 학술 세미나가 지난 11월 18일(목) 서울 공공일호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 건축자산의 제도적 활용방안-남원, 수원, 제주의 사례’를 주제로, ‘2021년 건축자산 지자체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축자산 보전·활용 사례를 공유하고자 개최되었다.

안창모 근대도시건축연구회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제1부 주제발표에서는 먼저 김태일 제주대학교 교수가 ‘제주도 건축자산 진흥구역 조사 및 관리계획안 수립’을 통해 진흥구역 심층조사의 진행 결과와 근대 풍경 유지 방향 및 관리계획을 짚어보았다. 다음으로 김민철 (주)서울 소셜스탠다드 대표는 ‘남원시 건축자산(미도탕, 남경탕) 가치조사’를 주제로, 남원 미도탕·남경탕의 지역적 의미에 대한 심층 조사와 활용 계획 수립 방안을 소개하였다. 끝으로 전진홍 bare(BARE) 소장은 ‘수원시 건축자산(舊 국립축산과학원) 가치조사’에서 국립축산과학원을 대상으로 우수건축자산으로서의 주요 가치 기준을 도출하고 보전·활용 지침을 제시하였다.

제2부 종합토론에서는 이규철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연경 인천대학교 연구교수, 조정구 구가건축사사무소 소장, 장옥연 온공간연구소 소장, 장민영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안국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사례별 특성과 개선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2021 경찰청-건축공간연구원 범죄예방환경설계 컨퍼런스 '안전한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CPTED 사업'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경찰청이 11월 25일(목) 경찰청 13층 대청마루에서 '2021 범죄예방환경설계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조주는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의 개최사와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번 컨퍼런스는 '안전한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CPTED 사업'이라는 주제 아래 올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물인 '노상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가이드라인'과 '범죄예방을 위한 조명 기준 개선' 등에 대한 대국민 보고회로 구성되었다. 주제발표에서는 이형진 서울동작경찰서 생활안전과 CPO가 '자치경찰 치안행정 협업 모델 제시', 현태환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원이 '범죄예방을 위한 조명 기준 개선 연구', 손동필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이 '노상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방안' 등을 순서대로 발표하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박현호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병도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박형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신상영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서 내실 있는 범죄예방 정책연구를 도모하기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제1차 라운드테이블 '도시·건축 아카이브 수집 방향과 실천'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제1차 라운드테이블이 12월 1일(수) 서울시건축센터 라키비움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올해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전시, 아카이브, 추진전략 및 로드맵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세미나는 수집을 키워드로 한 '도시·건축 아카이브 수집 방향과 실천'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수집 방향'을 다룬 주제발표 1부에서는 최원준 숭실대학교 교수가 '건축자료를 수집하는 아카이브를 포함하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에 대해, 박세훈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국립도시건축박물관 도시 분야 아카이브의 범위, 전략, 과제'를, 조경진 서울대학교 교수가 '조경 아카이브 기획의 쟁점'을 설명하였다.

이어진 주제발표 2부에서는 '수집 실천'을 중심으로 이규철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아카이브 구축 방안'을, 원종관 서울기록원 보존서비스과장이 '도시 아카이브의 카탈로그-불충분한 문서의 숲을 헤매다'를, 김태형 목천김정식문화재단 팀장이 '자료로 보는 한국건축가의 활동 내력'을 차례로 발표하였다.

각각의 주제발표가 끝난 뒤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토론자로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정체성과 역할, 도시 및 건축 등 수집 대상 자료의 기준, 이에 대한 실행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었다.





## 2021 고령친화 커뮤니티 정책포럼 '서비스연계주택과 돌봄공동체마을을 통한 고령친화 커뮤니티 조성' 개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건축공간연구원은 12월 7일(화) 2021 고령친화 커뮤니티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서비스연계주택과 돌봄공동체마을을 통한 고령친화 커뮤니티 조성'을 주제로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보건복지 및 건축도시 분야의 정책·계획·사례를 발표하여 고령자 및 베이비부머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마련되었다.

먼저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비스주택과 돌봄공동체 기반의 고령친화 커뮤니티'를 설명하면서 우리나라 고령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특성과 주거·복지 서비스 연계의 필요성 등을 발표하였다. 이어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서비스연계주택 공급의 쟁점과 방향'을 통해 노인주택개조사업의 내실화 필요성 등을 설명하였다. 끝으로 안현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와 싱가포르의 고령친화 지역사회 관련 정책적 노력과 사례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전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권오정 한국주거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강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민영 한국의료사협연합회 상임이사, 정순돌 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교수, 한규영 한겨레신문사 사회정책센터 및 여론과데이터센터장 등 건축도시·복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국가의 종합적 고령사회 대응 정책과 지원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 2021 AURI 아카데미 성과보고회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12월 13일(월)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21 AURI 아카데미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석·박사 과정 연구지원 프로그램인 2021 AURI 아카데미는 건축·도시 분야의 대표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성과 확산 및 차세대 연구인력 양성을 통한 기관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지난 5월 31일(월)부터 11월 26일(금)까지 약 6개월간 운영되었다. 연구계획서 평가와 면접 등을 통해 선발된 10명의 지원자는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진을 멘토로 하여 매월 1~2회 연구수행을 지원받았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그동안 수행한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지원자 전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였다.

지원자	연구주제
1 김희원	보행자 마스터플랜 사례 연구
2 김효정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통한 아파트 단지의 특례적용 현황과 계획 특징에 관한 연구
3 김수인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적용한 서울 도심부 경관 최적화
4 이하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을 활용한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사업의 영향 분석
5 김유진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설기준 마련 연구
6 오지연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우울감을 표출하는 공원이용자의 이용행태 분석
7 박예진	공원녹지에 대한 도시주민의 인식 분석과 정책활용방안 연구 - 성남시를 중심으로
8 최정인	공개공지의 공공성 확보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성 기준 개선방안 연구
9 이란희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의 범위 인식 현황 및 인식 제고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10 정혜린	직시하기, 불편문화유산을 덜 불편하게 보는 방법 - 대한민국 수도 서울 내에 복원된 일제 건립 국가건축문화재를 중심으로



## 2021 AURI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서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 국민과 소통하는 AURI' 개최

12월 7일(화)

과제명	책임자	주제
범죄예방 환경조성 지원사업	손동필	도시설계
인구구조변화 대응 고령친화 커뮤니티 조성 지원사업	고영호	
지속가능 보행도시조성지원사업	한수경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건축·도시공간정책 지원사업	조상규	스마트녹색
신기후체제 대응 지속가능 건축·도시정책 지원사업	이은석	
건축서비스산업 육성 지원사업	김은희	건축연구
공공건축 지원사업	방재성	
건축자산 보존·활용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	이규철	공간문화연구
한옥정책 및 산업화 연구·조사·지원 사업	신치후	
국토 경관관리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	심경미	지역재생
장소중심의 마을재생 지원사업	장민영	

12월 8일(수)

과제명	책임자	주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공간자원 활용체계 구축방안	변은주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언택트 어버니즘 전략 연구	손동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활권 공원녹지 개선 방안	김용국	
스마트건축 산업화 모델 및 제도 기반 확충에 관한 연구	김은희	스마트 도시건축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계획 및 사업 개편방안 연구	조상규	
건축규제 특례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협의조정제도 도입방안 연구	이여경	건축제도
공공건축물 건축기획업무 현황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박석환	
지방이주 청년의 정주지속을 위한 청년활동공간 조성방안 연구	장민영	지역·빈집 재생
인구감소시대 노후공동주택 빈집의 실태진단 및 관리방안 연구	한수경	
쇠퇴지역 공간관리를 위한 빈집 정책 개선방안	김민경	

건축공간연구원은 2021년 연구성과를 국내외 학계와 관련 분야 종사자, 일반 대중에게 공유하고자 온라인 오픈 세미나 방식으로 12월 7일(화)과 8일(수) 양일간 '2021 AURI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서'를 개최하였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 국민과 소통하는 AURI'라는 주제 아래 올해 건축제도, 지역·빈집재생, 스마트도시·건축, 포스트 코로나 관련 주제로 수행된 기본연구과제 10건과 건축·지역재생·도시설계·스마트녹색·공간문화 부문의 일반사업 11건에 대한 성과를 발표하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국내외 건축·도시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건축공간연구원의 연구성과 및 향후 연구원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2021  
제2차 AURI  
건축도시포럼  
'즐겁게 걷고,  
함께 쓰는  
보행도시'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행정안전부는 12월 10일(금) 서울 연남장에서 2021 제2차 AURI 건축도시포럼을 개최하였다. AURI 건축도시포럼은 건축공간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 중 주요 이슈를 주제로 선정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담론의 장이다.

보행환경을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조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즐겁게 걷고, 함께 쓰는 보행도시'라는 주제 아래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공공 부문의 노력을 공유하고, 기후위기와 인구절벽에 직면한 도시에서 보행권을 중심으로 기존 도시공간의 조성 과 운영·관리 측면에서의 변화 필요성 등을 논의하였다.

먼저 박소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의 기초발제 '걷기 좋은 도시 30년: 그 많은 운동, 연구, 정책, 사업은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나?'를 시작으로, 김은희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센터장의 '자동차로부터 마을을 지키자', 오성훈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보행도시 조성을 위한 우리의 노력' 등이 발표되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정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상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한수경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정훈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과거와 미래의 보행 도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 더 나은 거주가치를 위한 주거문화 정책 세미나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12월 16일(목) 공공그라운드 001 스테이지에서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거주가치 중심의 주택공급방식 활성화’를 주제로, 더 나은 거주가치를 위한 주거문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먼저 양동수 사회혁신기업 더함 대표가 ‘민간주도-공공지원의 대안적 주택의 사업 모델 및 공급/운영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김진욱 한솔아이키움 대표가 ‘돌봄특화형 공동주택의 가능성과 과제’를 설명하였다. 또한 임강륜 로컬스티치 본부장은 ‘코리빙·코워킹 공간을 통한 거주실험과 과제’를 전하였으며, 끝으로 염철호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거주가치 중심의 민간주도 주택공급방식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박경옥 충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하나 서울소셜스탠다드 공동대표,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박무찬 간삼건축 상무, 배성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거주가치 중심의 주택공급방식 활성화를 논의하였다.



##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세미나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현재와 미래’가 12월 17일(금) 서울시건축센터 라키비움에서 개최되었다. 연구원 유튜브 채널 auriTV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2007년 「건축법」에 도입된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운영 실태와 공동주택 적용 사례 및 확대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먼저 임유경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이 ‘특별건축구역 운영 실태와 향후 방향’을 발표하였으며, 오택준 운생동건축사사무소 소장이 ‘특별건축구역과 공동주택의 실험’을 통해 관련 사례를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진욱 건축사사무소예지학 대표는 ‘특별건축구역의 가능성’을 설명하였다.

윤혁경 에이엔유디자인그룹 건축사사무소 사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조관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 조성국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팀장, 김지엽 성균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특별건축구역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 2021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시상식 개최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건축공간연구원이 주관한 '2021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11월 25일(목) 건축공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우리 전통 건축인 한옥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한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2011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올해 11회를 맞은 한옥공모전은 '오늘의 경관을 품어 내일의 경관이 되는 한옥 만들기'를 주제로 준공·계획·사진·영상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올해는 준공 부문에 '올해의 한옥공공건축물상'을 신설하였다. 4개 부문에 311개의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엄정한 심사를 거쳐 준공 부문 4점, 계획 부문 18점, 사진 부문 23점, 영상 부문 15점 등 모두 60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설계와 시공 품질 등 건축물의 종합적 완성도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준공 부문 대상은 현대 한옥과 전통 한옥이 결합된 숙박시설인 '하동 한옥문화관'이 차지하였으며, 계획 부문 대상은 한옥 처마에 대한 현대적 해석을 표현한 '상상루'에 수여되었다. 사진·영상 부문은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옥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독창적인 시각으로 담아낸 작품들이 입상작으로 선정된 가운데 사진 부문에서는 '소나기와 고택'이, 영상 부문에서는 '한옥으로'가 각각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올해 준공 부문에 처음 신설된 올해의 한옥공공건축물상에는 '서울 정수초등학교 한옥교실'이 선정되었다.

## 2021 찾아가는 공공건축 교육 프로그램 실시

건축공간연구원이 공공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1 찾아가는 공공건축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과 공공 가치 구현을 위하여 공공기관 관계자의 역량 강화 및 인식 제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공건축 제도와 정책 변화 동향을 공유함으로써 행정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이에 건축과 도시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건축문화, 도시재생, 공공디자인, 정책·제도 등 다양한 주제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10월부터 11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서울·대전·광주 등 10개 공공기관 관계자 207명을 대상으로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교육을 진행하였다.

주요 교육 내용은 황두진 황두진건축사사무소 대표의 'COVID-19 이후 도시와 건축', 조남호 솔토지빈 건축사사무소 대표의 '미래도시 건축에서 목조건축의 가능성', 김광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의 '公共建築: 共을 넓히는

公', 정이삭 동양대학교 공간디자인학과 조교수 및 에이코랩 대표의 '일상의 공공성', 방재성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의 필요성과 과제', 이현우 (주)이집건축사사무소 대표의 '학교건축사례를 통한 공공건축 설계 실무 공유', 이기욱 파주시 총괄건축가 및 필립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의 '파주시 공간환경전략 및 공공건축 고도화 계획', 윤승현 인터커드 건축사사무소 대표의 '건축사연, 마을과 사람들', 박영일 건축사사무소 핸드 대표의 '공유와 소통 공간 구현하기 건축사례', 이용주 이용주건축스튜디오 대표의 '공공건축의 새로운 방향', 강정은 everyarchitects 대표의 '재생: 헛 것을 고쳐야만 재생인가?' 등으로 구성되었다.

